



昌原市

国際交流員レポート 5月号



昌原市のマスコットキャラクター
「ピウミ 피우미」

昌原特例市 창원특례시

こんにちは！韓国の国際交流員のソン・ハンビツと申します。
今回は山口市と韓国・昌原市の姉妹提携15周年(2024年11月16日)を記念して、
ソンの地元、韓国・昌原市を徹底的に紹介いたします！

昌原特例市は、2010年3月2日、昌原(チャンウォン)市、馬山(マサン)市、鎮海(チネ)市が併合し、誕生した韓国の特例市です。
韓国では、人口100万人以上の自治体は特例市と指定されます。
2024年現在、韓国全体で4市しかありません。

こちら**昌原市**は、**山口市**と姉妹提携を行っており(2009年11月16日から)、**昌原市**が位置する**慶尚南道**は、**山口県**と姉妹提携を行っております。

韓国の首都、**ソウル**からは遠いですが、
日本でも有名な**釜山**からはおよそ40分で、
韓国南部の大型国際空港、金海国際空港
からのアクセスも便利です。

ここでは旧行政名に沿って、**昌原エリア**、
馬山エリア、**鎮海エリア**で紹介し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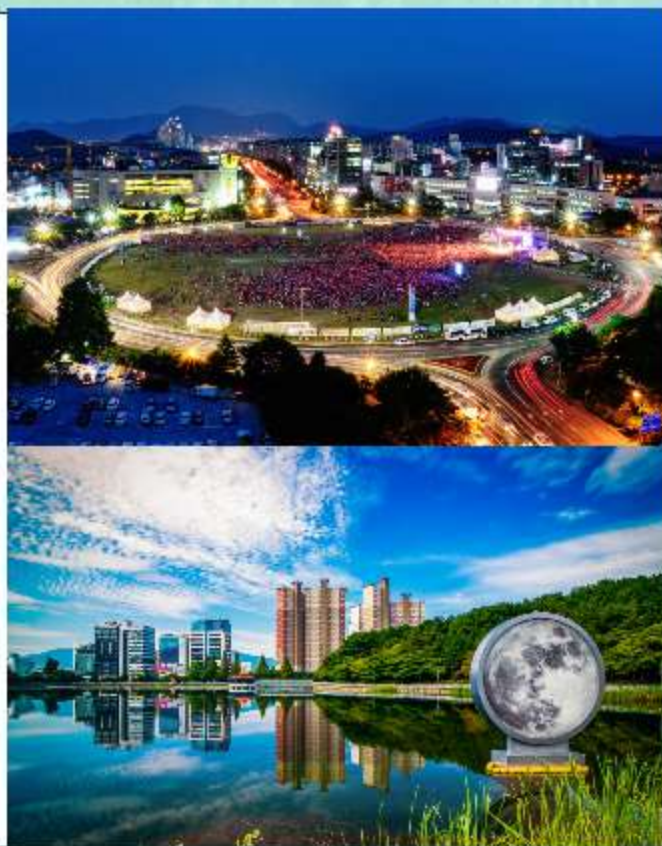
このレポートに使われた写真・キャラクターイラストの著作権は、
昌原市にあり、コンプライアンスを遵守して使用しました。
<https://culture.changwon.go.kr> (昌原市公式観光案内サイト)

昌原エリアは1970年代から、国が設計する計画都市としてインフラが大々的に設備されました。今は昌原特例市の経済・政治の中心地として地元民自慢の**全国5番目の自治体**(経済規模)となっております。

市の真ん中の**昌原エリア**には、およそ46万人の人々が居住しております。様々な商業、娯楽、行政施設があり、「国際住みよいまちづくり賞」(LivCom Awards)で銀賞を受賞したこともあります。

単に住みやすいだけでなく、今は特例市の政治・経済・文化の中心地として、様々な複合施設があります。

中でも、アジア最大の大きさの**昌原広場**の近くには、官公署、金融機関、百貨店、大型マート、アーケード、伝統市場が集まっています。



上) イベントが行われている昌原広場
下) ヨンジ公園、昌原の常盤公園のような場所

<昌原国際射撃場>

約13万 m^2 に達する総合射撃場です。毎年国際射撃大会を開催しており、一般の観光客も、実弾の散弾銃・ライフル・エアライフル体験ができます。また、カジュアルなスクリーン射撃、レーザーポイント射撃体験もできます。

<昌原の家・昌原歴史民族館>

韓国の古民家を昌原市が買い上げて保存、交流の場・学びの場として活用しています。昌原の家では当時の韓屋の構造が分かり、となりの昌原歴史民族館では昌原市の歴史と近現代韓国の暮らしが分かります。



上) 世界大会が行われている射撃場
下) 伝統行事が行われている昌原の家

〈近代までの昌原特例市〉

昌原特例市に人々が住み始めたのは青銅器時代からと推測されます。過去の海岸線に沿って貝塚、住居遺跡などが発掘され、骨浦、彌烏邪馬などと呼ばれた古代国家の痕跡とされてます。

以後、伽倻(カヤ)地方の一部になり海外と盛んに交流し、伽耶滅亡後は新羅に併入されました。高麗・朝鮮時代では、国境の町として海軍が駐屯し、港町として、漁業・商業・海運の中心地として栄えました。今でも、近代に栄えた魚市場が、観光名所として残っております。



左) 昌原茶戸里古墳群、現存する韓国最大規模の鉄器時代の古墳群
右) 聖住寺、新羅時代から始まった韓国のお寺

〈昌原特例市の環境・自然〉

昌原特例市の気候は山口市と似ていて、海岸に面していると同時に内陸盆地の特性が現れます。夏場は暑くて降水量が高いですが、冬場は温かくて雪があまり降りません。

計画都市として工業化する前には、自然豊かな田園都市で、今もチュナム貯水池、マクンサン温泉、多くの干潟などの多くの自然資源があります。

過去から農業も有名で、現在も韓国一の柿生産地です。その他にも、水がおいしいということで、お酒・醤油も有名です。



左) 昌原甘柿テーマパーク、醤油・味噌・酢を作る壺が見える
右) チュナム貯水池、ラムサール条約によって保存されている

馬山 (マサン) エリアは、旧馬山市と旧昌原市の地域で、近現代の中心地です。新しい世代のための生活の場でありながら、近現代の昌原を感じれる歴史遺産もたくさんあります。

大部分が海に面している馬山は、近現代の昌原特例市の政治・経済的な中心地です。歴史が深く、特色が強いため、今でも故郷を紹介する時、「昌原の者」と言わずに「馬山の者」と、言う人もいます。

今でも活気溢れるこの都市は、歴史遺産を守りながら、一方で新たな生活の場が生まれ続ける、ダイナミックな町です。美味しい海鮮を味わうことも、芸術と歴史を堪能することもできます。



上) 馬山のアパート群と埋立地
下) 浜辺で行われる「馬山菊祭り」

〈昌原NCパーク〉

馬山にあるNCパークは、韓国のプロ野球チーム「NCダイノス」の本拠地です。韓国ではプロ野球はとても人気の高いスポーツで、特に釜山(プサン)と馬山は野球愛が高いと言われてます。持ち込みもOKで、「馬山魚市場」買った新鮮な海鮮を楽しみながら野球を見る人々もいます。

〈チャンドン・オドンドン〉

過去、「慶尚南道の明洞(ミョンドン)」と呼ばれたこちらは、70~80年代に栄えたレトロな街です。閑散とする時期もありましたが、若手アーティストに空き店舗を無償で提供し、彼らの活動と市の再開発で、活気を取り戻しました。



上) 優勝して喜んでいるNCダイノズの選手たち
下) チャンドンのメインストリートのイルミアート

〈近現代の昌原特例市と馬山〉

馬山は、近代まで鎖国政策をとっていた韓国(朝鮮)の開港地の一つでした。そのため、各国の領事館、商社、支店などが位置し、近現代の経済的拠点の一つになりました。

現代に入っては、独裁政府が入る時期もあって、馬山の市民たちは政権に立ち向かい、民主化運動を行いました。当時の人々が不正に抗った跡が街の様々なところに残って、市からも「民主聖地・昌原」というスローガンを使っています。



左) チャンドン、3・15民主化デモのオブジェ
右) 国立3・15民主墓地と記念館(博物館)

〈馬山自慢のグルメ〉

昌原特例市の台所でもある馬山は、なによりも新鮮な海鮮で有名です。その中でも、なんと、一番有名なのはフグとあんこうで、山口の下関市と似ています。「アグチム(아구찜)」という辛いあんこう鍋は、韓国全国でも有名です。

また、馬山の独特な食文化として、お酒を注文し続ければ、それに合わせて店がおまかせ料理が出続ける店もあります。旬の海鮮と、様々な伝統的な山菜料理が特徴です。



左) 様々な海鮮料理、これらの料理をおかずとしてご飯と食べる
右) 馬山の名物のひとつ、アグチム(辛いあんこう鍋)

近現代から韓半島海軍の中枢部であった「**鎮海(チネ)エリア**」は、その名前通り、穏やかで美しい海で有名です。また、韓国内でも一番桜が美しい街と言われて、桜祭りの時期には国内外で数百万の人々が集まります。

韓国は、日本同様に少子化が社会的な問題になっていますが、鎮海は減少が少ない方です。

韓国の海軍基地が位置し、若い世代が集まって、またその人々を対象にする商圏が形成されつつあります。

鎮海はまだまだ開発の余地がたくさん残っており、とくに美しい海洋自然で生活・観光資源が益々活性化が期待されます。毎年新しいことが楽しめる、昌原特例市で今一番脈動している町です。



上) 余左川、一の坂川のような鎮海の桜の名所
下) 鎮海の海洋アクティビティを楽しむ交流員

〈日韓の歴史を歩む〉

前述のとおり、昌原特例市地域は太古から日本と様々な交流を行ってまいりました。その中で、鎮海は日本の重要な拠点とされた時もあり、様々な日本風建物が残っています。韓国国内に現存する一番古い近代式郵便局などがあり、築100年を超える歴史深い建物が多くあります。

国も、昌原特例市も、このような貴重な近現代の建築文化財を守り、新たに博物館、交流の場、学びの場として活用しております。



上) 鎮海に残っている、安土桃山時代の城の跡
下) 韓国に残っている唯一の近代日本風の郵便局



창원시

국제교류원레포트 5월호



창원시 마스코트 캐릭터
「피우미」

昌原特例市 창원특례시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제교류원 성한빛입니다.
금번에는 야마구치시와 창원시 자매결연 15주년(2024년 11월 16일)을 기념해서
저의 고향 창원시를 철저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창원특례시는 2010년 3월 2일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합병해 탄생한
대한민국의 특례시입니다.

한국에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지자체는 특례시로 지정되는데, 2024
년 현재 한국 전체에는 4개의 특례시가 있습니다.

창원시는, 야마구치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2009년 11월 16일부터), **창원
시**가 위치하는 경상남도는 야마구치 현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는 꽤 멀지만
일본에서도 유명한 부산에서는 약 40분으로
한반도 남쪽 대형 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에서
접근하기도 쉽습니다.

본 레포트에서는 옛 행정명을 따라, **창원 지역**,
마산 지역, **진해 지역**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본 레포트에 쓰인 사진, 일러스트의 저작권은 창원시에 있으며 사용 규약을 준수하며 인용하
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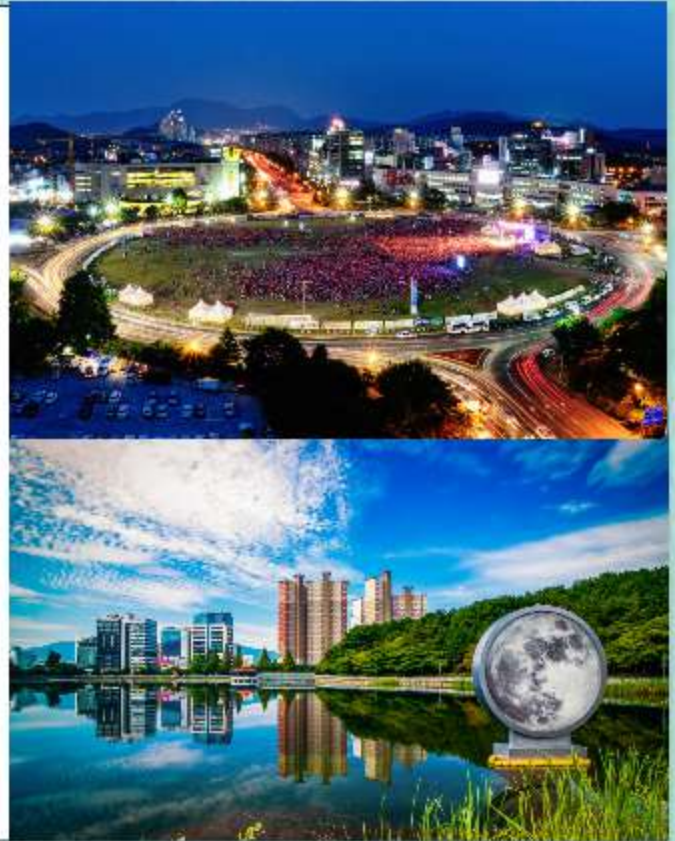
<https://culture.changwon.go.kr> (창원시 공식 관광 안내 사이트)

창원 지역은 1970년대부터 나라가 설계한 계획도시로서 인프라가 대대적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창원특례시의 경제, 정치적 중심지로서 창원 시민이 자랑하는 전국 5번째(경제규모)의 지자체입니다.

특례시 중앙의 **창원 지역**에는, 약 46만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업, 오락, 행정 시설이 있어 「세계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LivCom Awards) 에서 은상을 수상한 적도 있습니다.

단순히 생활이 편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창원 특례시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로서 다양한 복합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창원광장 근처에는, 관공서, 금융기관, 백화점, 대형 마트, 상점가, 전통시장이 모여있습니다.



上) 이벤트 개최중인 창원광장
下) 용지공원, 창원의 도키와 공원 같은 장

〈창원국제사격장〉

약 13万㎡에 달하는 종합사격장입니다. 매년 국제사격대회를 유치하고 있으며 일반 관광객도 실탄 산탄총, 소총, 공기총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스크린 사격, 레이저포인트 사격 체험도 가능합니다.



〈창원의 집 · 창원역사민속관〉

한국의 옛 민가를 창원시가 매입해 교류의 장, 배움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집에서는 당시 한옥 구조를 알 수 있고, 이웃하는 창원 역사민속관에서는 창원시의 역사와 근현대 한국 생활상을 알 수 있습니다.



上) 세계 대회가 열리는 사격장
下) 전통 행사가 열리는 창원의 집

〈근대의 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 지역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건 청동기 시대부터라고 추측됩니다. 과거 해안선에 따라 패총, 주거 유적 등이 발굴되어, 옛날에는 골포, 미오야마 등의 고대국가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후, 가야 연맹의 일부로 해외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가야 멸망 후에는 신라에 편입되었습니다. 고려, 조선시대에는 국경의 마을로서 해군이 주둔하는 동시에, 항구도시로서 어업, 상업, 해운의 중심지로서 번영했습니다. 지금도 근대부터 유명했던 어시장이 관광 명소로 남아있습니다.



左) 창원다호리고분군, 현존 한국 최대규모의 철기시대 고분군
右) 성주사, 신라시대에 창건된 한국의 절

〈창원특례시의 환경 · 자연〉

창원특례시의 기후는 야마구치시와 비슷합니다. 해안부에 위치하는 동시에 내륙 분지 특성도 나타냅니다. 여름에는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내리지만, 겨울에는 따뜻하고 적설량은 적습니다.

계획도시로서 공업화 하기 전에는 자연이 아름다운 전원도시로, 지금도 주남저수지, 마금산 온천, 여러 갯벌 등 수 많은 자연자원이 있습니다.

예부터 농업으로도 유명해 현재도 대한민국 제일의 단감 생산지입니다. 그 외에도, 물이 맛있기로 유명하여, 술과 간장으로도 유명합니다.



左) 창원단감테마공원, 간장, 된장, 감식초를 담근 장독
右) 주남저수지, 람사르 협약에 의해 보존되고 있다.

마산 지역은 구 마산시와 구 창원시 지역으로, 근현대의 중심지입니다. 새로운 세대를 위한 생활의 장이며, 근현대 창원을 느낄 수 있는 수 많은 역사 유산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바다와 접하고 있는 마산은 근현대 창원 특례시 정치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역사가 깊고 지역의 특색이 강해 지금도 고향을 소개할 때 "창원 사람"이라 하지 않고 "마산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활기 넘치는 이 도시는 역사유산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생활의 장이 계속 탄생하는 다이나믹한 지역입니다. 맛있는 해물을 즐기는 것도, 예술과 역사를 즐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上) 마산 해양신도시
下) 바닷가에서 열리는 「마산 국화축제」

〈창원 NC파크〉

마산에 있는 NC파크는 한국 프로야구팀 「NC다이노스」의 홈 구장입니다. 프로야구는 한국에서 매우 인기 있는 스포츠이며 특히 부산과 마산의 야구사랑은 유명합니다. 음식물 반입도 가능해 마산어시장에서 산 신선한 해물을 즐기며 야구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창동·오동동〉

과거 「경상남도의 명동」이라 불렸던 이 곳은 70~80년대에 번영한 예부터의 명소입니다. 한산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젊은 예술인들에게 점포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젊은이들과 시의 노력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上) 우승을 기뻐하는 NC다이노스의 선수들
下) 창동 상상길의 일루미네이션

〈근현대 창원특례시와 마산〉

마산은 근대까지 쇠국하던 조선시대의 개항지 중 하나였습니다. 때문에 각국의 영사관, 상사, 지점 등이 위치한 근현대의 경제적 거점 중 하나였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독재정부가 들어서는 시기도 있어, 마산의 시민들이 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부정에 맞선 흔적이 도시 곳곳에 남아있어, 시에서도 『민주성지·창원』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左) 창동, 315민주화 의거 발원지
右) 국립 315민주묘지와 기념관

〈마산이 자랑하는 먹거리〉

창원시에서도 음식으로 유명한 마산은, 무엇보다 신선한 해물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들은, 시모노세키시와 같은 복어와 아귀입니다. 특히 「아구찜」은 한국 전국에서도 유명합니다.

또, 마산의 통술거리는, 술을 주문하면 거기에 맞춰 맞춤 안주가 계속 나오는 가게들이 즐비합니다. 계절에 맞춘 해물과 산채요리는 정말 맛있습니다.



左) 다양한 해물요리, 안주로도 반찬으로도 제격
右) 마산의 명물 중 하나인 아구찜

근현대부터 한반도 해군의 중심지였던 「진해 지역」은 그 한자대로 잔잔하고 아름다운 바다로 유명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내에서도 가장 벚꽃이 아름다운 거리로 알려져 군항제 시기에는 국내외에서 수 백 만명의 사람들이 몰립니다.

대한민국은 일본과 같이 저출산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진해는 그 중에서도 인구수 감소 폭이 적은 편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기지가 위치해서 젊은 세대가 유입되고, 또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상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진해는 앞으로 더욱 개발 가능한 곳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아름다운 해양자연으로 생활, 관광자원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일들을 즐길 수 있는 창원에서 지금 가장 맥동하는 도시입니다.



上) 여좌천, 야마구치의 이치노사카강 같은 벚꽃 명소
 下) 진해에서 해양 액티비티를 즐기는 교류원

〈한일의 역사를 걸으며〉

앞서 서술한대로 창원 특례시 지역은 예부터 일본과 다양한 교류를 거쳐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해는 일본의 중요한 거점이 된 적도 있어, 많은 일본풍 건물이 남아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내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근대식 우체국 등이 있으며, 지은지 100년이 넘는 유서 깊은 건물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창원특례시도, 이런 중요한 근현대 건축물문화재를 지키며, 새롭게 박물관, 시민교류의 장, 배움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上) 진해에 남아있는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의 왜성 터
 下)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유일한 근대 일본식 우체국